

危機의 詩學: 北島 近作에 대한 一考察*

정우광**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유랑漂白'과 '회향懷鄉'의 정감
3. 『흑색 지도』와 『역사 읽기』: 모순어법, 기이한 상징, 대조적인 이미지의 조합
4. 서구와 중국 시학의 융합: 『겨울을 나며』와 『시간의 장미』
5.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중국의 가장 걸출한 시인으로 우리는 베이다오北島(1949-)를 꼽을 수 있다. 1989년 봄, 그가 유럽에 도착한 이후 자신의 시에다 공식적으로 천명하며 시작되었던 그의 망명생활은 기약도 없이 흘러갔다.¹⁾ 아마도 1989년의 6·4 천안문 학생시위 때에 나타났던 그에 대한 중국정부의 노골적인 반감이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되어 강요된 망명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그는 유산된 중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각인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1990년에 그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거처를 옮겨 데이비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 이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4년도 교내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

1) Oslo에서 1989년에 쓴 『無題』시의 마지막 연에 "말의 망명이 시작되었다(詞的流亡開始了)"란 구절이 보인다. 北島, 『守夜(詩歌自選集1972-2008)』(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75쪽.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창작활동을 한다. 1994년에 그는 잠시 귀향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베이징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미국으로 송환되기도 한다. 망명생활 11년이 지난 2001년에야 중국정부는 아버님의 병문안을 이유로 그의 입국을 허락하게 된다. 그 후로부터 중국정부는 그에게 수차례 단기간의 베이징 방문만을 허락하였을 뿐, 영구 입국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2007년에 와서야 비로소 그는 대륙은 아니지만 홍콩의 中文大學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 거처를 홍콩으로 옮겨 20여 년간의 망명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완화된 방침 덕분에 2008년에는 그의 산문집인 『등잔불靑燈』이 대륙에서 출판된 이후, 『푸른 집藍房子』(산문집/2009년) · 『자정의 문午夜之門』(산문집/2009년) · 『성문이 열리다城門開』(산문집/2010년) · 『아이에게 주는 시給孩子的詩』(시집/2014년) · 『아이에게 주는 산문給孩子的散文』(산문집/2015년 李陀와 함께 편집) 등이 연이어 대륙에서 출판된다. 베이이다오는 망명시절 동안 시낭송과 강연을 위해서 남미와 아프리카까지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온 적이 있다. 그의 시는 이미 30여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

베이이다오 망명시절의 시에 대해 학자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의 시가 망명 전과 비교할 때 풍격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망명 전의 작품들에서 그는 “하나의 자기만의 세계를, 즉 하나의 진실하고 독특한 세계, 정직한 세계, 정의롭고 인간다운 세계를” 정립하고자 했다.²⁾ 이것은 극좌적인 專制인 마오이즘이 막 끝난 폐허 위에 시를 통하여 자신만의 이상적인 공간을 확보하려던 그의 처절하고 진실한 외침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그의 시에서는 “강렬한 저항의식과 무거운 역사적 사명감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 베이이다오 시의 80년대 특징인 ‘냉혹冷峻 · 비장悲壯 · 비통淒愴 · 침울沉郁’ 등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³⁾ 이와 비교하여 그의 망명시절의 시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스타일, 파편화된 구문론, 이질적인 이미지리 등으로 인하여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 미국의 권위가 있는 중국현대문학 학자인 Michael Duke는 망명

2) 北島, 『我們每天的太陽』, 『上海文學』(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1년 5월), 76쪽

3) 王亞斌, 『自潮與反諷—論北島海外詩歌的一種風格』, 『齊齊哈爾大學學報』(2006년 3월), 82쪽.

시절의 시에 대해 “전체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대만의 저명한 시인이자 비평가인 李魁賢(1937-)도 “읽으면 읽을수록 말이 안 된다. 너무나 많은 모순의 매듭들이 풀 수 없을 정도이고, 해석을 하려하면 할수록 혼란만을 가중시킨다”고 비난한다.⁴⁾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평가들은 망명시절의 베이다오 시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방향성과 심미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망명시절의 작품 중 국내에서는 전혀 연구가 안 되었던 2010년에 출판된 『시간의 장미*The Rose of Time: New and Selected Poems*』의 마지막 부분의 시 15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⁵⁾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썬진 이 시들이야말로 글로벌 시학을 위한 시인의 고군분투하는 실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4) The more I read the less sense he makes to me. The knots of so many contradictions are beyond unraveling, and the more I try to interpret, the greater the apparent disarray. 베이다오 망명시절의 시에 대한 Michael Duke와 李魁賢의 견해는 Dian Li, “Paradox and Meaning in Bei Dao’s Poetry,” *Positions: East Asia Cultures Critique* (Vol. 15, Number 1, 2007, Spring), 115쪽에서 재인용. 이 글에서 Dian Li는 Michael Duke와 李魁賢의 견해를 비판하며, 베이다오의 시를 전통적인 주제상의 통일성과 해석상의 분명함을 갖대로 평가하려한다면 두 비평가는 분명히 실망감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베이다오가 헌신하고자 한 것이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패러독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패러독스’가 의미를 낳는다면 그것은 항상 복잡적이고 비차별적이고 불확정적이다. 따라서 Dian Li는 이 글을 통하여 독자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패러독스’의 전시가 그의 시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5) Bei Dao, trans. Eliot Weinberger, *The Rose of Time: New and Selected Poems* (New York: New Directions, 2010). 이 시집의 구성은 작가의 서문과 함께 이전의 시집들인 “팔월의 몽유병자*The August Sleepwalker*(1972-1986)”에서 발췌한 22수, “옛날의 눈*Old Snow*(1991)”에서 발췌한 18수, “거리의 유형*Forms of Distance*(1994)”에서 발췌한 18수, “영도 이상의 풍경*Landscape Over Zero*(1995-1996)”에서 발췌한 28수, “자물쇠를 열다*Unlock*(2000)”에서 발췌한 27수, 마지막으로 “시간의 장미: 새로운 시*The Rose of Time: New Poems*”란 제목으로 이 시집에서 처음으로 엮어진 15수를 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망명생활 전 시를 대폭 축소 발췌한 것이 사뭇 인상적이다.

2. '유랑'과 '회향'의 정감

“시간의 장미: 새로운 시”에는 「여행 일기旅行日記」·「흑색 지도黑色地圖」·「라말라拉姆安拉」·「소금—郎靜山의 『소금공장』이란 사진을 보고鹽—爲郎靜山『鹽廠』題照」·「아버님께給父親」·「그 최초의那最初的」·「맑은 하늘晴空」·「동행同行」·「과도기過渡時期」·「역사 읽기讀史」·「헌사—Gennady Aygi에게致敬—給G.艾基(Gennady Aygi)」·「등잔불靑燈」·「길 노래路歌」·「겨울을 나며過冬」·「시간의 장미時間的玫瑰」 등 15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시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베이다오의 '유랑'과 '회향'의 정감이 짙게 배어있다. 기약 없는 오랜 망명생활에 기인한 우울의 매체이기도 한 그의 이러한 시들은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생명을 가라앉히게 했고,” 그 결과 그는 이러한 “유랑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다. 그에게 '유랑'이란 “허무를 통과한 종착역이 없는 여행”으로, “끝없는 허무를 몸소 겪게 됨으로써 비로소 존재의 유한한 의의를 알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⁶⁾

陳曉明은 망명시절 베이다오 시에 대해 만약 어떠한 통일적이거나 혹은 비교적 일관된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變異' 사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變異' 사상은 매우 광범하여 대략 “역사적 變異·개인과 생활의 變異·시간의 變異·생명의 變異 등을 포괄한다”고 주장한다.⁷⁾ 말하자면 생활과 사물의 '變異'가 베이다오 서정의 동기를 구성하고 있다. 아래의 그의 주장을 보면 '變異' 사상에 감추어져 있는 베이다오의 '懷鄉'의 고독감을 알 수 있다.

베이다오는 결코 '變'의 사고에 관해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變'은 언제나 하나의 동기가 되어 시인에게 신중한 懷鄉의 고독감을 불러일으키고, (따라서) 이러한 '變'의 철학적 함의가 세속의 역사적 풍부한 함의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곧 베이다오의 시에서 직접적인 '懷鄉'의 근심을 찾아볼 수 없고(베이다오는 그렇게 천박하지도 않다), '고독'의 탄식에 관해서도 읽을 수 없게 되는(베이다오는 그렇게 간

6) 北島, 「自序」, 『失敗之書』(汕頭: 汕頭大學出版社, 2004), 4쪽.

7) 陳曉明, 『表意的焦慮-歷史祛魅與當代文學變革』(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02), 232쪽.

단명료하지도 않다)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베이다오의 시는 도처에서 懷鄉의 고독감을 무심코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초현실주의식의 변형 수법을 사용하여, 때때로 그러한 '變異'의 틈새 사이로부터 무심코 드러나며, 고집스럽고 어색하게 가득 차게 만든다.……베이다오 후기 시속의 '정치'도 결코 하나의 절대적인 핵심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 또한 기이하게 '懷鄉'의 정감 속에 부속되어 있다. 마치 '變'이 '懷鄉'을 촉발시키는 것처럼. 8)

시공간의 '變異'가 베이다오의 '懷鄉의 고독감'을 어떻게 촉발시키고 있는지 「아버님께」란 시를 보면 잘 드러나 있다. 이 시는 베이다오의 최근 작품 중에서 비교적 널리 애송되는 시이기도 하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애도함과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기억과 회한을 풍자적·은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파란만장했던 아버지의 인생 역정을 살펴보면서 정치적 풍파가 한 가정에 어떠한 위해를 가했는지, 그 시절에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고 시인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기지 넘치는 비판적 시각으로 포착하고 있다. 그는 「아버님父親」이란 글에서 “아버님의 인생 역정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자신의 발자취도 식별해낼 수 있게 된다. (아버님이) 걸으면 (나는) 걷고 뛰면 뛰었는데, 엇갈리면서도 (결국엔) 다시 합쳐졌다—이 하나의 발견이 나에게서 충격이었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9) 그도 아버지가 되자 비로소 이러한 폭군적 의식이 혈연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향에 의해서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내려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병은 독재자와 피압박자 모두를 감염시키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했다. 우리 인생에 감추어져 있는 권위/권력의 희극성이 이 시에서도 은유적으로 풍자되고 있다.

8) 北島絕不是在作抽象的形而上的關於“變”的思考，這種“變”總是作為一個動機，引起了詩人審慎的懷鄉的孤獨感，這就使這種“變”的哲學含意具有世俗歷史的豐富含意。這就是為什麼從北島的詩裏見不到直接的“懷鄉”的愁思(北島不會那麼粗陋)，也不可能讀到關於“孤獨”的慨嘆(北島不會淺顯)。但北島的詩又做佛處處都流露着懷鄉的孤獨感。它以超現實主義的變形手法，偶爾從那些“變異”的縫隙之間流露出來，執拗地瀰漫開去。……“政治”在北島後來的詩中，並不是一個絕對的核心主題，相反，它們又奇怪地附屬於“懷鄉”的情感，像“變”引發了“懷鄉”一樣。陳曉明，《表意的焦慮—歷史祛魅與當代文學變革》(北京：中央編譯出版社，2002)，233쪽.

9) 回望父親的人生道路，我辨認出自己的足跡，亦步亦趨，交錯重合—這一發現讓我震驚。北島，《父親》，『城門開』(北京：三聯書店，2010)，195쪽.

이월의 몹시 추운 새벽
상수리나무는 결국 비애의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당신의 사진 앞에서
팔면의 바람은 원탁의 고요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방향으로부터
본 것은 언제나 당신의 뒷모습
군주로 통하는 길을 따라
당신은 먹장구름과 양 떼를 방목하셨습니다

웅변적인 바람은 홍수를 가져왔고
골목의 논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자 아들이 되었고
나는 당신을 추종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세차게 흐르는 운명은
해와 달과 별을 움직여 운행시켰습니다
남성의 孤燈 아래
만물은 그림자로 쌍을 이루었습니다

시침 형제의 투쟁은
예각을 만들었고, 다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질병 천둥은 야간 병원에 연속해 울리며
당신의 문을 때려 부셨습니다

여명은 어릿광대처럼 등장했고
화염은 당신을 위해 침대보를 교체했습니다
시계가 멈춘 곳에
시간의 닳트는 썩하고 지나갔습니다

저 사망마차를 빨리 쫓아갑시다
봄날 줍도둑의 오솔길이
뭇 산의 재산을 찾아 조사했습니다
강물은 노래의 비통함을 에워쌌습니다

표어는 벽에 숨어 있고

이 세상 또한 별반 변화가 없습니다:
 여자는 몸을 돌려 밤에 유입되고
 새벽에는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¹⁰⁾

좁고 황량한 베이징의 '이월'의 '새벽'은 과거를 회상하기 좋은 시공간이고, '상수리나무'가 헐벗어 우뚝 서 있는 모습에서 계절의 잔인함을 누구나 느낄 수가 있리라. 여기서 "상수리나무는 결국 비애의 사이즈가 되었습니다"의 뜻은 의지가 굳세 굴하지 않았던 아버님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쇠약해지고 결국은 시인에게 상실의 고통을 느끼게 하고 있음을 비유한다. 다음 행에 등장하는 부친의 '사진'도 실존이 아닌 '사진'이라는 의미에서 다시 만나기 어려운 아버님에 대한 비통함을 더욱 애달프게 표현하고 있다. '괄면의 바람'과 '원탁'의 은유로 아버님 생존 시 외부에서 불어왔던 사방팔방의 바람이 이제는 집안의 객실에 놓여 있는 '원탁'처럼 평정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시상의 촉발로부터 시인은 2연에서 7연까지 풍자적으로 어린 시절의 아버님의 모습과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습을 빠른 이미지로 전개하며 회상하고 있는데, 이런 수법과 리듬은 베이다오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초기의 시인 「이력서履歷」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¹¹⁾ 마지막 연에서 "표어는 벽에 숨어 있고/ 이 세상 또한 별반 변화가 없습니다"고 암시하듯 이제 과거의 총체적이고 전체적이었던 '정치'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분쇄되었지만 시인에 의해 구체화되고 경험화된 '통치'는 아직도 유효함을 독자들에게 깨닫게 한다. 마치 음양의 조화처럼 여자는 밤에 유입되고 남자는 새벽에 걸어 나온다.

10) 在二月寒冷的早晨/ 橡樹終有悲哀的尺寸/ 父親, 在你照片前/ 八面風保持圓桌的平靜// 我從童年的方向/ 看到的永遠是你的背影/ 沿著通向君主的道路/ 你放牧烏雲和羊群// 雄辯的風帶來洪水/ 胡同的邏輯深入人心/ 你召喚我成爲兒子/ 我追隨你成爲父親// 掌中奔流的命運/ 帶動日月星辰運轉/ 在男性的孤燈下/ 萬物陰影成雙// 時針兄弟的鬥爭構成/ 銳角, 合二爲一/ 病魔滾進夜的醫院/ 砸響了你的門// 黎明如醜角登場/ 火焰爲你更換床單/ 鍾表停止之處/ 時間的飛鏢呼嘯而過// 快追上那輛死亡馬車吧/ 一條春天竊賊的小路/ 查訪群山的財富/ 河流環繞歌的憂傷// 標語隱藏在牆上/ 這世界並沒多少改變:/ 女人轉身融入夜晚/ 從早晨走出男人
 Bei Dao, trans. Eliot Weinberger, *The Rose of Time: New and Selected Poems* (New York: New Directions, 2010), 258-261쪽.

11) 베이다오가 2010년 서울을 방문했을 때에, 그와의 개인적인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가 무엇이나는 질문과 함께 낭송을 부탁했는데 그는 주저 없이 「履歷」를 추천했고 낭송을 하였다.

3. 「흑색 지도」와 「역사 읽기」: 모순어법, 기이한 상징, 대조적인 이미지의 조합

베이더오가 2002년 초에 발표한 「흑색 지도」란 시를 보면 모순어법과 기이한 상징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¹²⁾ 이 시는 2001년 10월 그가 아버님의 병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베이징으로 귀국한 정황을 담고 있다.

갈까마귀들이 결국 굶어모은다
밤을: 흑색 지도
나는 돌아왔다—歸路는
언제나 미로보다 길고
일생보다 길다

겨울의 마음을 품는다
생수와 꿀 알약제가
밤의 말들이 될 때
기억이 미친 듯 짓어떨 때
무지개가 암시장에 출몰한다

아버님 생명의 불꽃은 콩알과 같으니
나는 당신의 메아리
약속한 장소로 가기 위해 길모퉁이를 돌아서니
옛 연인은 바람에 몸을 숨겨
서신과 함께 소용돌이친다

베이징, 내가
너의 모든 불빛과 건배하게 하라
내 백발이 길을 안내하여
흑색 지도를 통과하게 하라
마치 폭풍이 너를 날게 하듯이

나는 그 쪽창에 줄을 서 기다린다

12) 이 시는 『新京報』에 발표될 때 「흑색 지도黑色地圖」란 원 제목에서 '흑색'은 삭제되고 '지도'만 남아 발표되었다.

달힐 때까지: 아 밝은 달
 나는 돌아왔다—다시 만남은
 언제나 고향보다 적다
 단지 한번만¹³⁾

그는 1989년 3월 망명의 길에 오른 후에 1994년 11월 24일 가족을 방문하러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베이징 세관에 의해 입국이 거부되어 강제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밖에 없었다. 11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 대한 감회가 “나는 돌아왔다—歸路는/ 언제나 미로보다 길고/ 일생보다 길다”란 구절에서 애절하게 느껴진다. 고향에 돌아가 병들어 누워 있는 아버님을 돌보 고자하는 자식된 도리를 표현하기 위해 ‘갈까마귀’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다. 『辭海』에 의하면 ‘갈까마귀’는 ‘자애로운 새慈鳥’로 효심이 지극하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갈까마귀’는 부정적 이미지로 ‘밤’을 ‘굽어모으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중적이고도 복합적인 ‘갈까마귀’란 상징에 의해 탄생한 ‘밤’은 그 절망감의 무게가 ‘흑색 지도’만큼이나 클 것이다. 지도란 원래 사람들이 길을 찾는 것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것인데 ‘흑색 지도’가 무슨 쓸모가 있으리라. 또한 시각적으로 ‘갈까마귀’ 하나하나에 의해 만들어지는 ‘흑색 지도’의 ‘밤’은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 ‘흑색 지도’는 ‘歸路’에 대한 베이다오의 절망감과 고독감을 반영하는 모순어법으로 시의 맛과 멋을 극대화시키는 패러독스의 미학임에 틀림이 없다.

5연 5행의 형식으로 구성된 이 시는 그 난독성으로 말미암아 악명 높은 베이다오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독자들에게 비교적 쉽게 읽혀진다. 난독성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시가 적대적인 외부 세계에 대한 내면의 복잡한 감응을 수수께끼와도 같은 이미지와 생략적인 통사론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¹⁴⁾ 2연에서도 수수께끼

13) 寒鴉終於拼湊成/ 夜: 黑色地圖/ 我回來了一歸程/ 總是比迷途長/ 長於一生// 帶上冬天的心/ 當泉水和蜜制藥丸/ 成了夜的話語/ 當記憶狂吠/ 彩虹在黑市出沒// 父親生命之火如豆/ 我是他的回聲/ 爲赴約轉過街角/ 舊日情人隱身風中/ 和信一起旋轉// 北京, 讓我/ 跟你所有燈光幹杯/ 讓我的白髮領路/ 穿過黑色地圖/ 如風暴領你起飛// 我排隊排到那小窗/ 關上: 哦明月/ 我回來了一重逢/ 總是比告別少/ 只少一次 Bei Dao, trans. Eliot Weinberger, *The Rose of Time: New and Selected Poems* (New York: New Directions, 2010), 252-253쪽.

와도 같은 파편적인 이미지가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봄이 아닌 “겨울의 마음을 품”고 고향을 찾는다는 것은 시인의 마음이 희망보다는 좌절과 시련을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빙과 냉정의 마음으로 베이징공항에 도착한 시인의 손에는 ‘생수’ 한 통과 ‘꿀 알약제’가 들려있다. 본질적으로 ‘생수’는 생명력과 참된 지식에 대한 상징이고, ‘꿀 알약제’는 꿀로 껍질을 씌운 쓴(독이 든) 약으로 거짓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생명력·참된 지식과 거짓말이 뒤섞인 언어가 흑색의 밤(조국·베이징)을 지배할 때 시인은 반신반의하며 歸路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과거의 기억들은 시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무지개(희망)’는 단지 ‘암시장(지하·불법)’에서만 출몰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형적이거나 관습적 상징들을 밀집된 이미지로 사용하면서 가능한 구어체의 통사론을 배제한다. 이러한 글쓰기가 재미있는 점은 영감과 직관적 이해에 의존하여 가능한 “덜 말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말하려 한다”는 중국의 전통적 시학을 베이다오가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⁵⁾

3연 “아버님 생명의 불꽃은 콩알과 같으니/ 나는 당신의 메아리”란 첫 두 행에서 시인의 歸路를 결심한 배경과 효심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자지간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메아리’로 표현한 점은 가히 천재적이라 할 수 있다. 3행에서 등장하는 ‘옛 연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말 그대로 아내인지 연인인지 아니면 수하물을 암시하는지 모호하다. 만약 이 시가 「시에 관하여關於詩」에서 언급한 것처럼 필름 몽타주의 기법을 차용하여 “병치된 이미지들을 창조하여 아주 빨리 연속시킴으로써 단어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공백을 독자들의 상상력으로 메우려고 노력”¹⁶⁾한 것이라면, 이 시는 그가 베이징공항에 도착하여 출국장을 나가기까지의 여정을 필름 몽타주의 기법을 사용하여 시간적으로 아주 빨리 연속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옛 연인’은 수하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5연에서의 ‘쪽창’은 입국심사의 쪽창일 가능

14) Dian Li, “Paradox and Meaning in Bei Dao’s Poetry,” 113쪽.

15) 줄고, 「과거, 현재 그리고 절망감—뻬이따오의 시세계」, 『현대시사상』 26 (1996년, 봄), 61쪽.

16) 줄 엮음, 『뻬이따오의 시와 시론』 (서울: 고려원, 1995), 57쪽.

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속한 장소'는 시인이 비행기에서 내려 수하물을 찾는 장소를 의미하고, "옛 연인은 바람에 몸을 숨겨/ 서신과 함께 소용돌이친다"라고 수하물이 낙엽처럼 바람에 뒹굴며 떨어지는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특히 '옛 연인'과 '서신'은 시인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추억과 향수이기도 하다. 시인이 '옛 연인'의 이미지를 등장시킨 까닭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내이건 연인이건 수하물이건 고향인 베이징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객관적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로 적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 나아가 '옛 연인'의 부재와 출현은 독자들에게 歸路의 따뜻함과 무언의 아픔에서 기인하는 시인의 긴장감을 환기시키고 있다. 대다수의 시에서 베이다오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시의 완성도와 흥미를 위해 자주 객관적 상관물이란 표현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4연에서 시인은 꿈에 그리던 고향인 베이징이 비로소 눈앞에 있음을 깨닫고는 불타오르는 걱정을 누를 수가 없어 "베이징, 내가/ 너의 모든 불빛과 건배하게 하라"라고 외친다. 시인의 심저에서 용솨음치는 건잡을 수 없는 호방한 감정은 11년이란 유배의 긴 시간과 함께 또 다른 소명과 희망의 외침을 낳고 있다. "내 백발이 길을 안내하여/ 흑색 지도를 통과하게 하라/ 마치 폭풍이 너를 날게 하듯이." 이러한 격정과 직서는 그의 시에서 드물게 나타나지만 그만큼 독자들의 감동도 배가된다. 시인은 흑색 지도 같은 조국의 현실을 바꿔보고자 하는 소명의식에서 歸郷의 의의를 찾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저항과 순수와 인간애로 규정할 수 있는 베이다오 시의 본질적 가치들은 여전히 유효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연에서 시인은 입국심사의 '쪽창小窗'에서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시인의 기억 속에 '쪽창'에 줄을 서 기다리는 행위는 중국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리고 '쪽창'이 때로는 아무 설명도 없이 닫히는 횡포도 비밀비재하였다. 이러한 기억은 시인에게 이제 중국에 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우려감으로 작용한다. '밝은 달明月'은 중국의 위대한 시인들인 屈原(B.C.343?-B.C.277?), 李白(701-762), 杜甫(712-770), 蘇軾(1036-1101) 등이 뜨겁게 사랑했던 가장 중국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우려 끝에 드디어 입국심사를 마치고 시인은 중국에

‘돌아왔다.’ 마지막 3행은 1연의 마지막 3행과 호응을 이루며 이 시가 종착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암시한다. “다시 만남은 언제나 고별보다 단지 한번만 적다”는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의 ‘고별’은 1연의 “歸路는 언제나 일생보다 길다”라는 말과 호응하여 영원한 이별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방문 후에 언제 다시 베이징을 방문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시인의 처지와 노쇠해가는 시인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독자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만든다. 그러하기에 ‘다시 만남(베이징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 어찌면 시인에게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역사 읽기」란 시에서도 패러독스의 미학을 기저로 모순적인 이미지를 밀도 있게 조합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사법은 쉬운 글쓰기가 아니다. 대조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밀도 있게 이미지를 조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미지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논리적인 연결에 실패한다면 독자들은 이 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미지 사이에 반드시 요구되는 논리적 연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이미지의 과도한 비약성 때문에, 독자들이 매우 모호하게 느끼거나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 또한 독자들은 시에 나타난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장악한 후에야 비로소 합당한 심미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매화가 폭동하던 중에 적의를 품은 이슬은
 정오의 겹에 의해 각인된 흑암을 수호한다
 혁명은 이튿날 새벽에 시작되고
 과부의 원망은 이리떼처럼 튼드라를 관통한다

선조들은 예언으로 인하여
 저 신앙과 욕망이 격론을 벌이는 강줄기로 후퇴를 한다
 끝이 없었고, 단지 소용돌이 속의 隱士만이
 또 다른 명상의 고요함을 체험한다

높이 올라 王位의 일몰을 본다
 문명과 피리소리가 텅 빈 계곡에 흩날릴 제

계절은 폐허 속에 서 있고
과실은 담을 넘어 내일을 뒤쫓고 있다¹⁷⁾

1연 1행에서 등장하는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매화’, ‘폭동’, ‘적의’, ‘이슬’이다. ‘매화’와 ‘이슬’이 길상과 평화의 이미지를 상징한다면 ‘폭동’과 ‘적의’는 그 반대이다. 또한 ‘매화’와 ‘이슬’과 ‘적의를 품은’이 정태적 이미지라면 ‘폭동하던(너도나도 활짝 피고 있는 매화를 암시)’은 동태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인은 평화 속에 전쟁이 잠복해 있고, 정태가 동태로 가지만 다시 정태가 되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말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시인의 역사 읽기는 이어지는 행들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슬’이 결국 수호하는 것은 ‘흑암’이고, 이 ‘흑암’은 오히려 “정오의 검에 의해 각인”되어 있다. 이러하듯 모든 역사적 폭력성의 배경과 근원은 시공적·특수적·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시공적·보편적·본질적인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道德經』 제2장에 나오는 “천하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데서 추함이란 관념이 나오고 선을 좋다고 생각하는 데서 악의 관념이 생긴다. 있고 없는 것은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생긴다”란 ‘유무상생有無相生’의 관점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시인이 만물 사이의 상대성과 변이의 과정으로부터 역사에 내재된 잔인한 폭력성을 간과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1과 2행을 이해할 수 있다면 3과 4행은 더욱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3과 4행은 앞선 두 행에 비해 대조적인 이미지의 사용과 밀도 있는 이미지의 조합에 있어 다소 진부할 뿐만 아니라 굳더더기인 듯한 인상을 준다.

2연에선 시인이 즐겨 사용하는 거대서사가 등장한다. 시인은 ‘선조祖先’, ‘예언預言’, ‘강줄기河流’ 등의 거대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역사의 비극성을 신비롭고 웅

17) 梅花暴動中敵意的露水/ 守護正午之劍所刻下的黑暗/ 革命始於第二天早晨/ 寡婦之怨像狼群穿過凍原// 祖先們因預言而退入/ 那條信仰與欲望激辯的河流/ 沒有盡頭, 只有漩渦隱士/ 體驗另一種冥想的寂靜// 登高看王位上的日落/ 當文明與笛聲在空穀飄散/ 季節在廢墟上站起/ 果實翻過牆頭追趕明天 Bei Dao, trans. Eliot Weinberger, *The Rose of Time: New and Selected Poems* (New York: New Directions, 2010), 270-271쪽.

18) 「유무상생」,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8768&cid=40942&categoryId=32972>
(2015년12월28일자)

장하게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읊고 있다. “신앙과 욕망이 격론을 벌이는” 인류의 역사는 그 시간성에 있어서 시인에게는 진보가 아닌 퇴보로 느껴진다. 역사적 격류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隱士’만 이러한 비극성을 공허하게 조용하며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3연에서 등장하는 ‘높이 올라登高’의 이미지는 “군자는 높은 산에 오르면 반드시 시를 지어 회포를 풀다登高能賦”라는 중국 고전시학의 전통이 떠오른다. 높은 곳에 올라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역사 활동의 증거인 ‘王位’의 몰락을 바라보니 ‘텅 빈 계곡’에 ‘문명과 피리소리’만이 흩날리고 있을 뿐이다. 시인은 반인륜적인 역사의 허구성을 폭로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계절(자연의 섭리)’과 ‘폐허’란 기초 위에 ‘과실(희망/결실)’은 여전히 내일을 기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도 ‘폐허’와 ‘과실’이란 이미지의 대조방식이 有無相生이란 시인의 철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대조방식은 일종의 긴장의 효과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역사 읽기」란 시는 짧은 편폭에 비해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너무 많고 복잡적이기에 수작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다만 시인의 숙명적인 역사관을 냉철한 이지의 인과관계로 풀어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4. 서구와 중국 시학의 융합: 「겨울을 나며」와 「시간의 장미」

「겨울을 나며」란 시를 보면 중국 고전시 絕句體에 있어서의 구성법인 起承轉結이 나타난다.¹⁹⁾ 4연 5행의 완전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 시는 1연에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이 시인에게 시상(詩想)을 일으키고, 2연에서 그것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며, 3연에서는 봄의 장면과 거기서 느끼는 사상을 새롭게 전환시키고, 4

19) 기승전락(起承轉落) 또는 기승전합(起承轉合)이라고도 한다. 제1구를 기구(起句), 제2구를 승구(承句), 제3구를 전구(轉句), 제4구를 결구(結句)라 하며, 이 네 구의 교묘한 구성으로 한 편의 절구를 만드는 방법이다.

연에서는 시 전체를 묶어서 여운(餘韻)과 여정(餘情)이 깃들도록 끝을 맺고 있다.

깨어난다, 북방의 소나무 숲이—
대지의 긴박한 북소리
나무 몸통에는 햇빛의 독한 술
암흑의 얼음을 격동시키고
마음은 이리떼와 고향을 친다

바람이 훑쳐 간 것은 바람
겨울은 대설의 채무로 인하여
그것의 은유보다 크다
향수는 망국의 군주처럼
찾고자하는 것이 영원한 잃음이다

큰 바다는 생자를 위해 슬퍼하고
별들은 번갈아 가며 사랑을 밝혀 준다—
누가 이 全景의 증인이 될까
호각소리 강물과
과수원의 폭동을 인솔할?

들었는가? 내 사랑아
우리 손에 손을 잡고 늙어가자
어휘와 함께 동면하자
다시 짜는 시간 속에 남겨지는 움매듭
혹은 미완성의 시²⁰⁾

1연에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 “북방의 소나무 숲”이 어떻게 깨어나고 있는지 시인은 신비스럽고 오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대지의 긴박한 북소리”로 겨울에 얼어붙은 땅이 녹아 가쁘게 숨을 쉬는 형상을, “나무 몸통에는 햇빛의 독한 술”로

20) 醒來: 北方的松林—/ 大地緊迫的鼓聲/ 樹幹中陽光的烈酒/ 激蕩黑暗之冰/ 而心與狼群對喊// 風偷走的是風/ 冬天因大雪的債務/ 大於它的隱喻/ 鄉愁如亡國之君/ 尋找的是永遠的迷失// 大海爲生者悲亡/ 星星輪流照亮愛情—/ 誰是全景證人/ 引領號角的河流/ 果園的暴動// 聽見了嗎? 我的愛人/ 讓我們手挽手老去/ 和詞語一起冬眠/ 重織的時光留下死結/ 或未完成的詩
Bei Dao, trans. Eliot Weinberger, *The Rose of Time: New and Selected Poems* (New York: New Directions, 2010), 278-279쪽.

겨울보다 강렬한 햇살이 나무 몸통에 드리운 형상을, “암흑의 얼음을 진동시키고”로 소나무 숲 깊숙이 겨울동안 뾰뾰 얼었던 얼음이 깨지는 형상을 각각 표현하고 있다. 봄이 왔건만 어찌하여 시인의 “마음은 이리떼와 고향을” 치고 있는 것일까? 다음 연에서 그 이유가 암시되고 있다.

2연에서 “바람이 훑쳐 간 것은 바람”이란 비록 한겨울의 거센 북풍은 아니더라도 차가운 바람이 지금 아직도 존재한다는 모순어법이다. 이 구절은 겉보기에 논리에 어긋난 뒤집어진 논리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심오한 자연의 이치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겨울은 춥고 길게 느껴진다. 그러하기에 겨울은 궁핍·시련·죽음·휴식·유배 등을 은유한다. 베이다오 시에서도 겨울은 자주 등장하며 이와 같은 원형적 성질을 갖는다. 이 시에서 시인은 봄이 왔건만 심지어 ‘대설’의 채무에 의해 아직도 춥다는 느낌이 커진다. 이런 느낌은 고향을 떠난 시인에게 더욱 더 향수의 고독감을 촉발시키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망국의 군주처럼/ 찾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 잃음”이 될 수도 있음을 환기한다. 어찌면 시인은 영원히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심심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3연에서는 봄의 情景가 중국 문학의 전통적 심미 기법인 ‘정경교용情景交融’의 방법으로 드러난다. “큰 바다는 생자를 위해 슬퍼하고/ 별들은 번갈아 가며 사랑을 밝혀 준다”라는 표현에서 시인은 ‘큰 바다’와 ‘별’이란 物象에 의거하여 시련을 극복한 봄의 서정 즉 시인의 서정을 실어 나르고 있다. ‘큰 바다’의 ‘슬픔’과 ‘별들의 ‘사랑’이란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인의 외면세계와 내면세계가 조화롭게 통일되어 있기에 독자들로 하여금 ‘무아지경無我地境’의 장엄미에 빠져들게 한다.²¹⁾ 누가 이 생명력 강한 봄의 畵景의 증인(사실을 증명하는 최소·최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시인은 감정에 복받쳐 묻는다. 봄에 장차 발생하는 ‘호각소리’와도 같은 ‘강물’과 ‘과수원’ 꽃들의 만개를 ‘인솔할’ 자는 누구인가? 그러나 시인은 답을 주지 않는다. 아마 시인은 독자들에게 상상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봄(생명/희망)의 제전을 이끌고 나갈 증인은 서글프게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게다.

21) 오태석, 『情景交融』, 『문학비평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837&cid=41799&categoryId=41800>
(2015년12월27일자)

3연의 결과로 4연의 첫 행부터 시인은 어쩔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든다. 겨울이 지나갔건만 시인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손에 손을 잡고 늙어”갈 뿐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어휘와 함께 (다시) 동면”할 뿐이다. 그렇게 “다시 짜는 시간 속”에서 단지 ‘옴매듭(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과 ‘미완성의 시’가 남겨진다. ‘옴매듭’과 ‘미완성의 시’란 이미지에서 독자들은 시인 베이다오에게 아직도 저항과 투사의 정신이 존재한다는 점을 느꼈을 것이다. 이 시의 문맥은 ‘옴매듭’은 언젠가는 풀릴 것이고 ‘미완성의 시’는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라는 강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1연의 “마음은 이리때와 고향을 친다”에서 확증을 얻고, 전체적인 시의 주제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망명 전의 선명한 저항과 투사의 정신으로부터 시인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보다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시가 망명 후의 시적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간의 장미」란 시에서 시인의 오랜 망명생활의 내면세계가 드러난다. 시인은 정열·애정·사랑·욕망·기쁨·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장미’와 ‘시간’과 결합하여 “시간의 장미”란 합성어로 제목을 준다. 또한 이 “시간의 장미”를 반복 출현시키며 매 연을 끝맺고 있다. “시간의 장미”가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문지기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너는 폭풍우와 함께 몸을 튼다
포옹 속에 늙어가는 것은
시간의 장미

새의 여정이 하늘을 확정할 때
너는 저 지는 해를 뒤돌아본다
사라짐 속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의 장미

칼이 물속에서 구부러질 때
너는 피리소리를 뱉으며 다리를 건넌다
密謀 속에 울부짖는 것은
시간의 장미

붓이 지평선을 그을 때
너는 동방의 정에 의해 놀라 깨어난다
메아리 속에 피어나는 것은
시간의 장미

거울 속에는 영원히 이 시각
이 시각은 환생의 문으로 통하고
그 문은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시간의 장미²²⁾

1연 1행에서 “문지기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로 조국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을 형상화하고 있다. 2행의 “너는 폭풍우와 함께 몸을 튼다”에서 ‘너는’ 시인을 의미하고 ‘폭풍우’는 시인이 겪어야만 했던 고난을 의미한다. 망명 전에 베이더오는 〈선고宣告〉란 시에서 “저는 결코 영웅이 아닙니다/ 영웅이 없던 시대에/ 인간이기를 갈구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²³⁾ 정치적인 풍파 없이 인간으로서의 순수성과 가치와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시인의 삶이 추구했던 목표였다. 이 시기 시인에게 중요했던 관심사는 마오이즘의 기치 아래 과거에 자행되었던 인간성의 파괴에 대항하여 일상적이고도 평범한 사적인 영역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정치에 무관심했던 시인의 시도 1980년대 학생시위대나 중국정부는 가장 정치적인 시로 읽었다.²⁴⁾ 그들에게는 “비열은 비열한 자들의 통행증이고/ 고상은 고상한 자들의 묘지명이다……(중략)……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난—맡—자—않—아!”²⁵⁾ 등의 정치서정시적인 구절들이 선명하게 눈에 띄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인 베이더오의 영향력은 작은 시인 동호회를 넘어 대학 캠퍼스로 더 나아가 중국정부의 민감한 사항까지도 건드리게 되었고, 부

22) 當守門人沉睡/ 你和風暴一起轉身/ 擁抱中老去的是/ 時間的玫瑰// 當鳥路界定天空/ 你回望那落日/ 消失中呈現的是/ 時間的玫瑰// 當刀在水中折彎/ 你踏笛聲過橋/ 密謀中哭喊的是/ 時間的玫瑰// 當筆畫出地平線/ 你被東方之羅驚醒/ 回聲中開放的是/ 時間的玫瑰// 鏡中永遠是此刻/ 此刻通向重生之門/ 那門開向大海/ 時間的玫瑰 Bei Dao, trans. Eliot Weinberger, *The Rose of Time: New and Selected Poems* (New York: New Directions, 2010), 280-281쪽.

23) 北島, 〈宣告〉, 줄 위음, 『베이더오의 시와 시론』 (서울: 고려원, 1995), 92쪽.

24) Dian Li, “Paradox and Meaning in Bei Dao’s Poetry,” 114쪽.

25) 北島, 〈回答〉, 줄 위음, 『베이더오의 시와 시론』 (서울: 고려원, 1995), 36-37쪽.

득불 그는 해외로 망명을 떠나야만 했다. 그로부터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폭풍우’와 뿔뿔히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공생관계가 되었고, ‘몸’을 틀어 해외로 망명했지만 고난과 절망감은 여전했다. ‘폭풍우’와의 ‘포옹’이란 의미심장한 은유 속에 시인은 ‘폭풍우’에다 자신을 숨긴다. 갑자기 ‘폭풍우’와 함께 세월이 흘러갔음을 시인은 느꼈을 것이다. “늙어가는 것”이 시인과 ‘폭풍우’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장미”도 늙어가고 있다. 여기서 시인은 ‘장미’란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묘한 여운을 독자들에게 남기고 있다.

2연은 미국에서 망명생활 십여 년을 보냈어도 아직 귀향에 대한 날짜조차도 알 수 없는 시인의 처량함이 짙게 배어 있다. 하늘에서 갈 길을 못 찾고 배회하고 있는 철새의 ‘여정’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며 1행을 시작한다. 그러자 시인(‘너’)은 “저 지는 해를 뒤돌아”보며 고향 생각에 잠긴다. “지는 해”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해가 서쪽으로 지기에 시인의 위치상 고향(중국)을 암시한다. 둘째, 해가 ‘지는’ 행위에는 여정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문다는 세월에 대한 시인의 아쉬움이 배어 있다. 셋째, 심지어 1연에서 언급한 ‘폭풍우’가 ‘지는 해’처럼 사라지고 있기에, 중국의 상황이 점차 호전되어 가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라짐’ 속에서도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시간의 장미’로 은유되는 시인의 귀향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라 할 수 있다.

3연은 이미지나 내용에 있어서 중국 고전시의 풍미를 물씬 풍기고 있다. “칼이 물속에서 구부러질 때/ 너는 피리소리를 났으며 다리를 건넌다”는 다리 밑에 살기가 등등함에도 피리를 불며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리 밑 물속에 칼이 숨겨져 있기에 그 ‘피리소리’는 틀림없이 한번 건너면 절대 돌아올 수 없는 비극의 연주일 것이다. ‘다리’는 중국 고전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드라마틱한 장소이다. 이별과 만남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좁아서 도망갈 곳이 없기에 살육의 密謀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촉즉발의 위기의 결과는 매우 처참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密謀 속에 울부짖는 것은” ‘시간의 장미’로 은유되는 역사적 밀모에 의해 희생된 영혼들이다.

4연은 3연에서 절망의 늪에 빠져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영혼들에게도 새벽은 반

드시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붓’이 ‘지평선’을 긋는 것으로 해가 뜰 때 ‘지평선’이 나타나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 특히 ‘붓’으로 ‘지평선’을 긋는 행위는 그 힘이나 속도에 있어서 여명 시의 실제 상황을 적절하게 현시하고 있다. 이 때 시인은 “동방의 징에 의해 놀라 깨어난다.” ‘동방의 징’이란 틀림없이 태양을 의미하는데, 태양이 ‘지평선’ 위로 용솟음치며 흰히 깨어나는 시각적 모습을 청각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희망의 ‘메아리 속에’ 다시 떠오르는 것은 ‘시간의 장미’로 은유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과 광명에 대한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연에서 시인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시각’의 정경을 반영하고 그럼으로써 성찰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거울’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거울’의 반영적 성질로 인하여 단지 ‘이 시각’뿐이다. 이로써 영원성을 획득한 ‘이 시각’은 “환생의 문으로 통하고/ 그 문은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환생’이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담고 있고 ‘큰 바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암시한다. 따라서 ‘거울’에 반영된 ‘이 시각’은 새로운 희망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기에 ‘시간의 장미’처럼 영원성을 가질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간의 장미’는 추상과 구상이 조합을 이룬 합성어로서, 시인은 이 은유를 다층적 의미의 관계망 속에서 반복 출현시키면서 그 속에다 자신을 표현하기도 숨기기도 하면서 심리적 평형감을 유지하고 있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베이다오의 망명시절 후반기인 2001년부터 2008년에 쓰여진 대표작들을 위주로 시에서 나타나는 ‘變異’ 양상을 살펴보았다. 망명 전 그의 시에 나타난 주요한 주제는 현실 정치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그에게 ‘저항 시인’이란 선명한 낙인을 붙여주었다. 기약도 없는 망명의 삶이 길어지면서 그에게 ‘流亡의 정치시인’이란 또 하나의 낙인이 찍혀지게 된다. 이 글에서 분석한 시들은 세월이 흐름과 함께 시인도 知天命을 넘긴 나이에 쓴 작품들이다.

따라서 시인은 겪어왔던 숙명의 현실을 번민하기보다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통찰하고 있다. 그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개인과 시간과 생명과 역사와 우주 등의 명제가 深思와 冥想을 통해 '유랑'과 '懷鄉'의 정감이란 주제 속에 심미적 형태로 부속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들은 우울의 擔體이기도 하다.

이 시들을 망명 전과 비교할 때 가장 현저한 차이점은 시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베이다오가 오랜 세월 미국에서 문예창작을 강의하면서 서구의 시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 결과 앞서 「흑색 지도」와 「역사 읽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모순어법, 기이한 상징, 대조적인 이미지의 조합 등을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의미의 모호성과 불확정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숨김과 드러냄 사이에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패러독스 시학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한다. 또한 이러한 패러독스의 시학이 중국문학의 전통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음을 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분석한 모든 시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베이다오는 서구와 중국 시학을 융합시키고 있다. 이러한 실천은 방향성을 상실한 위기의 중국현대시에 새로운 서정의 글쓰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학의 창조를 위한 험난한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겨울을 나며」는 起承轉結이란 絶句體의 형식미를 차용하고 있으며, 중국문학의 전통적 심미 기법인 情景交融의 방법도 등장하고 있다. 「시간의 장미」에서는 '시간'과 '장미'란 합성어로 얼핏 보기에는 서구적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은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함의에는 시인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는 패러독스의 시학이 깊이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연은 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지는 해'·'벗'·'겨울'·'환생의 문'·'큰 바다' 등의 이미지는 사뭇 고전적이기도 하다. 이 두 시는 고전시의 주제적 갈래인 懷古詩의 변종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시들에 나타난 시간의 방향성은 일종의 회고로 지향하는 바가 역사와 기억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망명 전 시에 나타난 시간의 방향성은 일종의 전망으로 지향하는 바가 미래이었다. 망명 전과 달리 이제 시인은 동양과 서양을 모두 포용하는 거대 시학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인의 실천은 중국문화에 대한 긍지와 신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랜 '유랑'

과 '懷鄉'의 정감이 생명의 뿌리와 영혼의 귀의를 확인하는 장이기도 하다.

〈參考文獻〉

- 北島, 「我們每天的太陽」, 『上海文學』,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1年5月.
- 伊沙 等, 『十詩人批判書』,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2001.
- 唐曉渡, 『唐曉渡詩學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 陳曉明, 『表意的焦慮—歷史魅魘與當代文學變革』,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02.
- 北島, 『北島詩歌集』, 海口: 南海出版公司, 2003.
- 北島, 『失敗之書』, 汕頭: 汕頭大學出版社, 2004.
- 洪子誠 劉登翰, 『中國當代新詩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楊四平, 「北島論」, 『涪陵師範學院學報』, 第21卷 第6期, 2005年11月.
- 王亞斌, 「自潮與反諷—論北島海外詩歌的一種風格」, 『齊齊哈爾大學學報』, 2006年3月.
- 北島, 『守夜(詩歌自選集1972-200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北島, 「父親」, 『城門開』, 北京: 三聯書店, 2010.
- 李庶, 「北島詩歌的創作轉向與當代詩歌的審美日常化生態研究」, 『文學批評』 第3期, 2013年.
- 陳曉明, 『中國當代文學主潮』,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3.
- 崔春, 「論北島及『今天』的文學流變」, 山東大學博士學位論文, 2014년 6월.
- 정우광, 『베이다오의 시와 시론』, 서울: 고려원, 1995.
- 정우광, 「과거, 현재 그리고 절망감—베이다오의 시세계」, 『현대시사상』 26호, 1996년, 봄.
- 정우광, 「北島의 近作詩—그 전통성과 현대성」, 『中國語文學誌』 제8집, 2000.
- 김종석, 「참회·추구·희망: 北島의 시 세계」, 『中國學論叢』 제15집, 2002.
- 정우광, 『北島詩選』, 서울: 문이재, 2003.
- 베이다오, 배도임 옮김, 『한밤의 기수』, 서울: 문학과학지성사, 2005.
- 오윤숙, 「1989년 이후의 베이다오(北島) 연구」, 『中國現代文學』 제32집, 2005.
- 이경하, 「북도(北島)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中國語文學誌』 제17집, 2005.
- 박남용, 「중국인 디아스포라 베이다오 北島의 시적 이미지 연구」, 『외국문학연구』 제28호, 2007.
- Yeh, Michelle, *Modern Chinese Poetry: Theory and Practice since 1917*,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1.
- Dian Li, "Paradox and Meaning in Bei Dao's Poetry," *Positions: East Asia Cultures Critique*, Vol. 15, Number 1, 2007, Spring.

Bei Dao, trans. Eliot Weinberger, *The Rose of Time: New and Selected Poems*, New York: New Directions, 201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strate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Bei Dao's 北島(1949-) latest poems appeared in the last part of his new poetry anthology *The Rose of Time: New & Selected Poems* (New York: New Directions, 2010). The last part of this book contains 15 poems, written during the years 2001-2008, under the title of "the rose of time: new poems." Throughout his exile, his feelings of the nomadic life and homesickness can be in a greater or less degree major contributions to these poems. Compared with his exile poems of pre-the year 2001, these poems marks an important development or, more accurately, a notable change toward world poetry, displaying how profoundly Chinese and Western poetics match up.

This study contains five parts including introduction and conclusion. Part Two explores the qualities of 'the homesickness' in his poem "To My Father" 给父亲 through his feelings of loneliness and frustration which have been deeply ingrained in his memory. Part Three explores his poems "Black Map" 黑色地图 and "Reading History" 读史 through his use of oxymoron, elliptical syntax, split imagery, cryptic metaphors and symbols, etc. Part Four explores his poems "Passing Winter" 过冬 and "The Rose of Time" 时间的玫瑰 through his serious efforts to find a new global poetics combining both traditional Chinese poetics and Western poetics.

Keywords: Bei Dao, Bei Dao's exile, The Rose of Time, To My Father, Black Map, Reading History, Passing Winter Collective/Cultural Memory, Misty Poetry

이 논문은 2016년 1월 17일에 접수되어 2016년 2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